

# 중소·소상공인 “버틸 가게 없어… 위드 코로나 전환하라”

중기중앙회, 소공연 등 기자회견  
“방역 완화 아닌 현실에 맞게 개편”  
소상공인 90%, 7~8월 매출 감소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with 코로나 대응, 방역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에서 추귀성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장, 정경배 대한속박업중앙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추진단장이 호소문을 읽고 있다. /중기중앙회

“방역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달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이구동성으로 '위드(with) 코로나'를 외쳤다.

최근 정부 관계자 일부와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 등 곳곳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직접 당사자들이 이를 호소하기는 처음이다.

목소리는 간절했다.

중기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와 공존이 필요한 때”라며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기중앙회 외에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속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가 동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제 우리도 행정명령 중심의 일률적인 방역체계에서 벗어나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은 엄격하게 준수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획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소상공인과 공존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역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직접적 운영 규제 최소화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 구분한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 ▲9시인 영업제한은 업종과 위험도에 따라 10시 또는 12시로 연장 ▲4단계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인원 제한'서 완전 제외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예정된 행사 정상 개최 통한 전시산업 등 업종 피해 최소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입장문에서 “방역과 경제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며, 코로나19와 공존은 불가피하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역체계 대신 업종별·단계별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방역체계 개편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4단계에선) 결혼식은 49명, 종교활동은 99명까지 허용되는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몇명까지 되느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또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9시까지만 공부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식당도 점심엔 4명까지인데, 저녁에 2명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 방역체계를 완화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개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생계난을 신랄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이태원의 한 음식점 사장 A씨는 “2011년 문을 연 고기집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었다. 돈을 벌어서 매장을 꾸렸는데 더 됐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다. 버티다 못해 지난 8월 31일 10년 동안 장사했던 가게의 문을 닫았다. (나중에 연) 남아있는 가게 하나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지금대로라면 버틸 날 (자영업자) 가게는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B씨는 “월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러 갔더니 앞서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나눠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았

다는 증거를 요구했다. 그런데 난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정책자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 정책자금을 못받았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 방역체계가 개편없이 지속될 경우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63%(심각하게 고민 23%·약간 고민 37.0%)에 달했다. ‘휴·폐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26.2%에 그쳤다. ‘큰 영향이 없다’는 10.8%로 집계됐다.

또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올해 7-8월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76.8%는 코로나 공존시대를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에 찬성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에 따른 연장 여부 등을 3일 발표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KT, 테라급 네트워크 증설... 수도권 IDC 연결

기존 IDC 백본망 용량비 10배 수준  
인터넷 접속망 100기가 단위 확장

KT가 수도권 6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연결해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응한다.

KT는 2일 용산, 목동1·2, 강남, 분당, 여의도 IDC를 연결하는 ‘원(One) IDC’ 인터넷 백본망에 테라급 네트워크를 증설했다고 밝혔다. 기존 IDC 백본망 용량 대비 10배 수준이다.

KT는 테라급 네트워크 구축으로 KT 수도권 IDC 이용 기업이 급격한 트래픽

증가시 인터넷 접속망을 100기가 단위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IDC는 수도권에 위치한 KT IDC를 연결해 하나의 거대 IDC 형태로 연동하는 기술로 국내에서는 KT가 처음 선보인다. 원 IDC는 한 IDC에 갑작스럽게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해도 인접 IDC를 경유해 백본망에 접속하는 방식이라 차질 없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의 가상 네트워크로 통합 관리돼 IT자원이 여러 IDC에 분산돼 있어도 고비용의 물리적 회선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

KT는 디도스 공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위치 대역폭도 10배로 넓혔다. 트래픽 흐름을 유연하게 제어하는 네트워크 토탈 솔루션도 IDC에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디도스 공격을 받아도 신속하게 회회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네트워크 토탈 솔루션에는 세그먼트 라우팅, 이더넷 VPN 기술 등 다양한 네트워크 신기술이 적용됐다. 세그먼트 라우팅은 서비스별로 트래픽 경로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며, 이더넷 VPN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센터를 논



KT는 2일 수도권 6개 IDC를 연결하는 ‘원 IDC’ 인터넷 백본망에 테라급 네트워크를 증설했다고 밝혔다. /KT

리적으로 상호 연결해주는 DCI에 최적화된 기술이다.

이미희 KT Cloud/DX사업본부장 상무는 “기업고객이 원하는 트래픽 수준이 ‘기가급’을 넘어 ‘테라급’으로 늘

어진 것에 맞춰 네트워크 증설과 신기술 적용을 마쳤다”며 “KT는 국내 최대 IDC 사업자로서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달라진 고객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창대 기자 ccd1@

## LG화학, 단석산업과 바이오오일 공장 설립

2024년 생산공장 완공 목표

LG화학이 친환경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 원료 확보를 위해 바이오디젤 전문기업 단석산업과 손잡고 합작공장 설립에 나선다.

LG화학은 2일 경기 시흥시 단석산업 본사에서 ‘HVO(Hydro-treated Vegetable Oil)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주요조건합의서(H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과 단석산업 한승욱 대표이사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양사는 내년 1분기(1~3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생산공장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 HVO(수소화석물성오일) 공장이 건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공장은 최근 LG화학이 발표한 대산사업장 10개의 신설 공장 중 하나다.

HVO는 폐식용유, 팜부산물 등의 식물성 원료를 수첨반응 시켜 생산하는 차세대 바이오 오일이다. 저온에서도 얼지 않는 특성이 뛰어나 차량용 뿐만 아니라 항공유 및 석유화학 원료로도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용 바이오디젤이 1세대라면, HVO는 기술적으로 진일보된 2세대 바이오 연료다.

이번 협력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Bio-balanced 제품 확대 및 친환경 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LG화학, 차세대 바이오 연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단석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승욱 단석산업 회장(왼쪽)과 LG화학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이 2일 경기도 시흥시 단석산업 본사에서 주요조건합의서(HOA)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LG화학은 HVO 내재화를 통해 바이오 SAP(고흡수성수지)·ABS(고부가합성수지)·PVC(폴리염화비닐) 등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LG화학은 친환경 바이오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ISCC Plus 국제 인증 제품을 연내 30여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 한컴그룹, 내년 국내 첫 지구관측 위성 발사

영상 데이터 서비스 벨트 구축

한글과컴퓨터그룹이 국내 첫 지구관측용 민간위성을 발사하고 영상 데이터 서비스 사업 전략 계획을 제시했다.

한컴그룹 계열사인 우주·항공 전문기업 한컴인스페이스는 2일 경기도 성남시 한컴타워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우주위성 ‘스파이더 글로벌’과 협력해 2022년 상반기 국내 첫 지구 관측용 민간위성 ‘세종1호’를 발사한다고 밝혔다.

저궤도 초소형 인공위성 세종1호는 지상으로부터 500km의 궤도에서 약 90분에 한 번씩 하루에 12~14회 지구를 선회하며 5m 해상도의 관측 카메라로 7가지 파장의 영상 데이터를 수집할 예

정이다.

한컴그룹은 세종1호 발사 후 5호까지 순차적으로 위성 발사를 추진한다. 향후 사업 성장세에 따라 50기 이상의 군집위성을 발사·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구 관측 영역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취득 소요 시간을 줄여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한컴그룹은 자체 개발한 정찰용 드론 ‘HD-500’도 선보였다. HD-500은 관측용 드론으로 이미지·영상 데이터 수집에 최적화됐다.

한컴그룹은 세계적인 영상카메라 기업인 캐나다 인피니티 옵틱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국내 완성형 초고해상도 센서 시장을 개척한다고도 밝혔다.

/한창대 기자